인물 소개

Artist Bios

Sungah Serena CHOO is a curator and writer. CHOO gained her unique and dynamic point of view from her past curatorial career experiences at Seoul Museum of Art (SeMA) and dedicated 7 years as an independent curator at the non-profit sector curating various shows combining both philanthropic and commercial aspects. CHOO currently is a curator at Leeum Museum of Art.

추성아

큐레이터로서 다수의 기획하고 글을 쓴다. 서울시립미술관을 거쳐, 7년간 독립 기획자로 활동하면서 주요 비영리 공간(두산갤러리, 아마도예술공간, 페리지갤러리, 보안여관, 플랫폼엘, 성곡미술관 등)에서 전시를 기획했다. 현재 리움미술관 큐레이터로 재직 중이다.

Rala Choi (b.1987) based in Seoul, the image-making process begins with exploring his innermost thoughts and feelings. Portraying universal human emotions, Rala brings to life scenes he has previously sketched.

Following a successful few years in which Rala has had two sold-out solo shows in Seoul, also exhibited internationally, he was awarded the Photography Grand Prix at the 37th International Festival of Fashion, Photography and Accessories, Hyères in 2022. Rala’s successful auction debut with ‘a woman lying on the sofa’ which sold to £27,940, over double the estimate at Phillips’ Photographs Auction in May 2023.

최랄라(1987년생)는 서울에 거주하며, 필름 카메라라는 아날로그적인 언어로 자아와 세상 그리고 그 사이의 수많은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는 필름 사진작가다. 피사체의 내면으로 파고드는 작업 방식을 발전시켜 사진에 감정을 담아 표현하고 소통하는 방식과 필름 카메라의 매혹 적인 색감, 과감하게 대비를 이루는 색상 표현 등 그만의 독특한 작품세계로 국내외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2022년 프랑스 이에르 페스티벌 (International Festival of Fashion and Photography at Hyeres)에서 사진 부문 대상인 그랑프리와 대중 투표상을 수상했으며, 2023년 최랄라의 경매 데뷔작이 추정가의 두 배가 넘는 2만7940파운드(약 4600만원)에 낙찰돼 눈길을 끌었다.

With works spanning across South Korea, UK and India, Joonho Ko draws experiences from his diverse cultural background. His illustrations bring light to everyday elements in life and challenges the audience to become active observers, to discover the extraordinary within the ordinary. Merging visual and textual language, his work often results in unique compositions reminiscent of ancient hieroglyphs and geometric abstraction. His previous clients include Louis Vuitton, Google, Victoria & Albert Museum, Hyundai Genesis, Folio Society,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and many more.

고준호는 영국 킹스턴 대학 (Kingston University) 일러스트레이션 & 애니메이션 과를 졸업하고, 한국과 영국, 인도에 오가며 작품활동을 하고 있다. 선명하게 다른 문화권을 넘나들며 수집해 온 경험에 기반하여 그려지는 그의 작업은 아마도 일상적인 것들을 일상적이지 못하게 바라봐 온 습관 때문으로, 언제나 사물과 텍스트를 짝지어 앞에 둔 관찰자의 시점으로 진행된다. 그는 자주 작업을 이미지가 아닌 텍스트 그 자체로 생각하곤 하는데, 고대 이집트의 상형문자, 혹은 기하학적 추상과 같은 평면적인 구성이 작업의 주를 이루는 이유이기도 하다. 작가에게 작화란 잘 구성된 자신만의 문장을 만드는 행위와 같은 셈이다.

최근 루이비통, 구글, V&A 미술관, 현대 제네시스, 폴리오 소사이어티, 국립 민속 박물관 등 과 작업했다.

Rondi Park concentrates on expanding personal history into social phenomena through various media such as textile, performance and ceramic works. She explores aesthetic values and powers of Zany, Cute, interesting relating them with desire to find out their social relation.

Her recent exhibition includes 《And I need you more than I want you》(WhitenoiseSeoul, 2021), 《The Last Things Before The Last》(Hite Collection, 2022), 《Living in Joy》(ArtSonje Ceneter, 2023).

박론디는 영국 브라이튼대학을 졸업한 후, 다수의 그룹전과 한 번의 개인전을 열었다. 텍스타일과 퍼포먼스, 세라믹 등 다양한 매체 안에서 개인의 역사를 사회적 현상으로 증폭시키는 것에 집중한다. 또한 익살스러움, 귀여움, 흥미로움과 같은 정서가 가진 미학적인 힘을 탐구하며 이것과 사회와의 관계성을 욕망 또는 욕구를 매개체로 사용해 네러티브를 풀어간다. 주요 전시로는 개인전 《And I need you more than I want you》(화이트노이즈서울, 2021)와 그룹전 《끝에서 두 번째 세계》(하이트컬렉션, 2022), 《이 공간, 그 장소: 헤테로토피아》(대림미술관, 2020) 등이 있다.